

북스

Books

한장의 사진에서 역사를 깨닫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가 일, 사라지고 지금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와는 관계없이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지배한다. 심지어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역사’라는 단어로 바꾸면 뜻은 더 명확해진다.

‘우리 안의 과거 : 미디어·메모리·히스토리’는 일본학계 전공한 오스트레일리아 화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역사를 표현하는 매체가 과거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2004년 5월의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를 보다 ‘1920년대 초기 영국이 이라크에 퍼부은 폭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당시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미군의 팔루자 폭격, 이라크인의 저항, 영국군과 바사르 인근 주민과의 충돌 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1920년대 이라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속해 있던 각지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고 이때 영국은 석유자원의 매력 때문에 이라크를 주목, 점령한다. 영국군은 이라크인과 쿠르드인의 저

우리안의 과거 테사 모리스 스즈키 지음

항을 폭격과 화학병기 등으로 잠재운다. 이러한 나쁜 기억을 가진 이라크인으로서 2004년 다시 만난 점령군 영국군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를 알자 현재가 명확해졌다.



주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역사에 대한 분석과 논의

저자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이란 마치 이미 철수한 군대가 남겨둔 지뢰를 장난감인줄 알고 손을 뻗어 주우려는 어린이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 통

안 떠들썩했지만 오히려 교과서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 미국 남북전쟁의 역사를 이해하고, 케네디 암살 사건을 얘기할 때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표현된 역사를 짚어보는 일은 중요하다. 매스미디어가 국경없이 범람하는 세계화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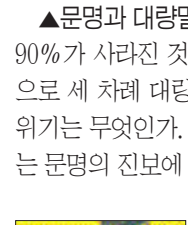
저자는 역사소설·사진·영화·만화·인터넷 등 다섯 가지 주요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아는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둔 저자의 예리한 분석은 책장 넘기는 손을 바쁘게 한다.

저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역사가다.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든 안 하든, 재미있어 하든 재미없어 하든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휴머니스트·2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축제, 세상의 빛을 담다=붉은색, 황금색, 청록색 등 유럽의 10개 축제들이 가지는 그들만의 색을 풀어낸 여행예제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규원씨가 스페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의 ‘색깔있는 축제’를 진솔하게 그려냈다.〈시공아트·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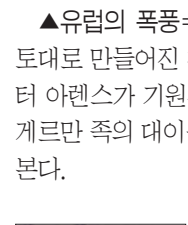
▲문명과 대량살육의 역사=대륙간의 이동으로 지구상의 생물 90%가 사라진 것을 비롯해, 운석충돌과 용암분출, 기후 변화 등으로 세 차례 대량 멸종을 겪은 인류가 직면해 있는 네번째 멸종 위기는 무엇인가. 저자 프란츠 브로스워머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문명의 진보에 대해 조명한다.〈에코리브르·1만3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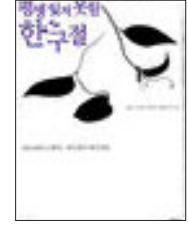
▲또 하나의 유산=‘문화재 1지킴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가꾸자는 운동이다. 대학생, 사춘기 소녀, 직장인, 주부 등 광범한 우리 이웃들이 온몸으로 참여한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을 가꾸어가는 모습을 담은 활동 사례집을 펴냈다.〈놀와·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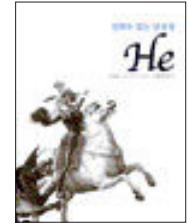
▲중국사 강의=개대한 중국의 역사를 사진과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저자 저우수평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돌아보고, 그것이 중국사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도록 중국사를 11개로 나눠 설명한다.〈들배개·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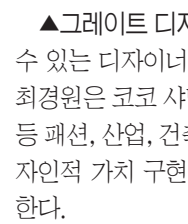
▲유럽의 폭풍=독일의 국영방송인 ZDF가 방송한 시리즈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으로 ZDF ‘역사와 사회’ 팀장으로 일하는 페터 아렌스가 기원전 120년부터 서기 800년까지 900여년에 걸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 유럽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여다 본다.〈코티도·1만3천원〉



▲평생 잊지 못할 한구절=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소중한 한마디가 있다. 배우이자 전 문화부 장관인 김명곤, 배우 유인촌, 소설가 한승원 등 문坛계 명사 28명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에게 위로를 주었던 감동 어린 시와 글귀들을 소개한다.〈예담·8천900원〉



▲신화로 읽는 남성성 He=용 심리학자인 로버트 존슨의 ‘신화로 읽는 심리 3부작’ 중 두번째 책이다. 성배신화를 통해 한 남성의 개별화 과정을 다룬다. 소년이 성장하면서 거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분석한다.〈동원·9천원〉



▲그레이트 디자이너10=20세기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살펴볼 수 있는 디자이너 아닌 사람을 위한 디자인서가 출간됐다. 저자 최경원은 코코 샤넬, 조르조 아르마니, 필립 스타, 안도 타다오 등 패션, 산업, 건축 디자인계 거장들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디자인적 가치 구현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길벗·1만6천원〉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전라도 순천 출신의 이영환이 자신의 소개하는 백안의 토박이 의사. 호남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진 벨을 시작으로 111년, 4대째 한국에서 따뜻한 정을 키워가는 민트 가의 한국 사람이 그려진다.〈생각의 나무·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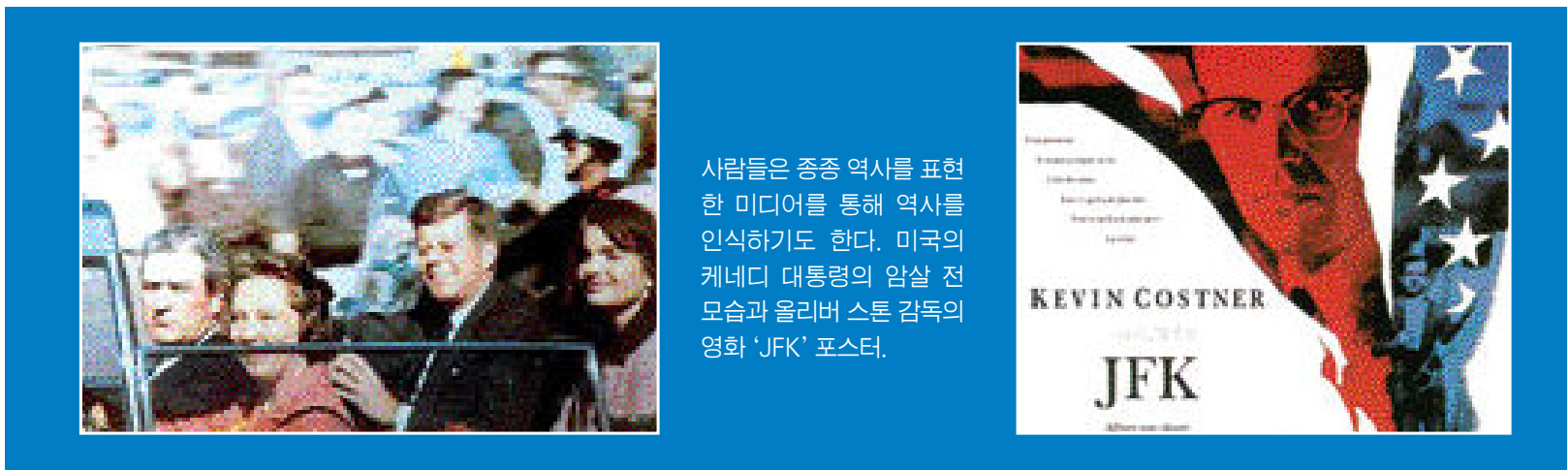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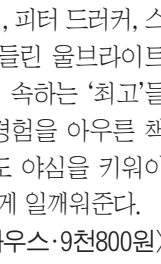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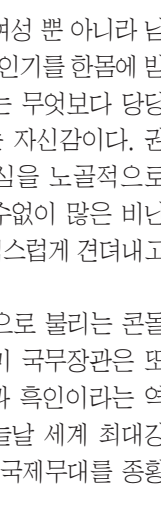
그들은 어떻게 ‘강한여자’가 되었나 ‘힐러리처럼 일하고..’

2008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로빈슨 클린턴 상원의원. 그녀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로부터도 인기를 함몰에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자신감이다. 권력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탓에 수많은 비난을 받아오 역척스럽게 견뎌내고 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콘돌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또 어떤가. 여성과 흑인이라는 역경을 딛고 오늘날 세계 최대강국의 2인자로 국제무대를纵横 무전한다.

힐러리, 콘디, 퍼터 드러커, 스티븐 코비,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세계 1%에 속하는 ‘최고’들의 과거의 만남과 경험을 아우른 책은 왜 여성들도 야심을 키워야 하는지 명쾌하게 일깨워준다.

〈웅진지식하우스·9천800원〉



사람들은 종종 역사를 표현한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인식하기도 한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전 모습과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 포스터.

인문학의 창으로 본 과학

김용석의 지음

과학과 인문학의 점점과 소통

인문학자 10명이 쓴 유쾌한 과학 이야기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미술이 수학과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 고전미술의 3대 미덕이라는 비례·대칭·조화의 개념은 기하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유 청장은 수학자 계영희씨를 만나 수학과 미술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사람을 알기 위해 동물을 연구한다”는 동물학자 최재천을 만난 소설가 공지영은 “유전자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학과 인문학은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할까, 과학과 인문학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인문학의 창으로 본 과학’은 10명의 인문학자가

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10명의 과학자를 만나 나눈 대담의 내용을 각자의 스타일로 풀어 쓴 책으로 2004~2005년 ‘한겨레’에 연재했던 글들을 수정 보완했다.

신화학자 정재서(이화여대교수)는 천문학자 박창범을 만나 우주론과 창조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만지일보 총수 김여준은 위성사업담당 이주진과 우주 개발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뇌과학자 신회섭을 만난 철학자 김용석(영산대

교수)은 뇌와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역사학자 김기봉(경대교수)은 나노화학자 유희과의 대담에서 미시사(微視史)와 뇌과학의 관계를 들여다 본다.

그밖에 입자물리학자 손동철과 동국대 인도철학과 이거봉 교수, 로봇공학자 양현승과 조광제 철학자아카데미 공동대표, 철학자 이진경과 생명과학자 황우석 박사의 대담 내용을 만날 수 있다.

대담 말미에 실린 ‘쉽게 읽히는 과학의 발자취’ 코너는 진화이론 등 10개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대담 내용이 조금 짧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겨레 출판·1만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A+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
자산실행의 평가 기준 전문 자산관리·자산투자
광주 전남권토지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900

첨단·수완·신창
상업용지 택지 상가건물 중개전문

매망 **첨단최고오지**
3면도로접
560여평

첨단지구 상업용지
240평 270평 510평 587평 1100평 3000평
100평 111평 115평 180평 200평 250평 270평

주유소
1300평 15억 600평 16억 650평 35억
350평 12억 300평 8억 7억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기타
골프연습장부지 4300평 1만3천평
물류·공장부지 2900평 2600평 4900평
수원동 4차선 접 1200평 1800평
삼거동 2차선접 2500평

전원주택(주택부지)
도로·경관 최고
입국동 3억 동산 4억
담양수북 2000평 1900평

공장
전설 3000평 하남공단 980평
첨단지구 A급상가
인데 45평 50평 기타

☎ **장성·담양권 물건구합** ☎
-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존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께
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개사들간의 협력은 성공의 필수요소이고 우리의 성공은 모두 귀하같은 중개사님을 덕분입니다. 아래의 물건은 전속중개계약 물건입니다. 제 물건을 소개해 주시면 이미 확정된 임대인으로서 받게될 제 수수료를 나눠드립니다.

▶ **전대주택 레스트호트** 2층 1백평 프랜차이즈점포지 6500만원 월100만원 시·비 1억2천

▶ **전대주택 1층 소주호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점포지 6500만원 월100만원 시·비 1억2천

▶ **상가동 일구사거리 영동신사빌** 판 및 청사부지 1층 식당 1백평 주차장완비 6500만원 월2백90만원 시·비 9천만원

▶ **전대주택 파라다이스 앞골목지** 노리평 75평 111개 매출장부공 개가능 월매출2천4백만원 6777만원 월1백80만원 시·비 4억5천

▶ **부구 무량부구** 1층 김밥분식점 18평 매출장부공개가능 5500만원 월450만원 시·비 4천500만원

▶ **사구 골목동** 금호지구 아파트상가 1층 점포점 13평 보2천만원 월90만원 시·비 1천만원(각종 프랜차이즈 최적지)

▶ **두양동** 능형삼거리 1층 식당 50평 보2천만원 월1백20만원 시·비 2천500만원(모든업종가)

▶ **전대주택 3층 소주호프** 45평 엘리베이터완비 보1천만원 월1백15만원 시·비 2천만원(모든업종가)

▶ **전대주택 3층 카페** 30평 최신시설 완비 보1천만원 월50만원 시·비 1천만원(모든업종가)

▶ **전대주택 CNA골목 2층 소주호프** 25평 보2천만원 월30만원 시·비 1천200만원

저는 양수인측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비용·권리금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상가전문 전속중개계약 업소입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을 아는 저 대신을 보지 못한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다.
over view!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mobile) 010-7288-4351 ☎4342-894
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매매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연락주세요.
에덴공인중개사 박사장

호남랜드공인중개사
☎(대)373-3939, ☎(민)011-616-8698
(영주동 서광주우체국앞)

전속중개계약 취급업소입니다.

공장 급 매매
소재지 : 화순군 능주면 장미리 7-19외1필지 농부농공단지내
면 적 : 토지면적 3,973평 공장면적 1,482평
구 조 : 철골조 및 슬래브조
매매가 : 매매가격 12억5,000만원

건물 매매 (2층)
소재지 : 남구 서동 65-72
대성초교사거리 25m대로변
면 적 : 대지 66평 건평 275평 (지하, 지상5층)
매매가 : 보증금 1억1,600만원 월180만원
매매가격 4억6,000만원

토지 매매
소재지 : 남구 노대동 노대마을 앞 대로변 일민주거지
거주지, 실버타운 예정지, 전원 택지지구
비토일
면 적 : 521평
매매가 : 매매가격 평당 100만원

상업 용지
소재지 : 광안구 평동공단 내 상업지역, 지하철역 대로변
면 적 : 296평
매매가 : 매매가격 평당 350만원

다량 물건 ☆ Homepage : www.honamland.co.kr
홈페이지 참고 ☆ E-mail : kj8949@hanmail.net

중앙국토개발건설
(☎) 011-647-3500
(광주지방법원 뒷편)

상가, 점포
▶ 북구 우산동 우미프라자 1층 상가 222평형 매매가 47,000,000원

별장용지 및 휴게소
▶ 완도군 신지면 명사암리 해수욕장 입구 바닷가에 인접한 담 1,090평 전방호수 자연경관 수려할 광장 35,000원

▶ 완도군 신지면 신지대교 옆 바닷가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 휴게소 부지 3,600평, 전방호수 자연경관 수려하며 담 입종과 병행사업 가능하며 투자 가치가 높음 매매가 8억

전원주택, 별장용지
▶ 전남 나주 종림리, 자연녹지, 85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신원매매
▶ 광주 남구 양촌동 대충중초고 근처(광진계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94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중공업 용지
▶ 장성 북이면 원대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차광출입용이, 계약이 흐르고 12면이 저수지, 정남향, 평당 12,000원

▶ 광주 동구 소태동 13,093평, 자연녹지, 차광출입용이, 전가공급, 지대에 우수토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편제되었음, 평당12,000원

모지용 용지
▶ 완주 이십리, 너릿재와 김루소 사이 우측 용지, 2500평, 평당 50,000원, 조경가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522-9422, ☎(민)011-643-3210
(동림2지구 및 하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속 입주확정 1층 광주은행

대지공인중개사
(☎)011-625-3965

구합니다

- 사해복지시설부지: 2만평 이상(가 격은 시세대로)
- 금매물 부동산구합니다(신속처리)

판다

- ▶ **입야 11,000평, 담양 창평**
창평지역, 완전농지, 전원 80m 포장도로접 매매가 5천19,000원
- ▶ **금남로 공시지가 15억**
• 매매가 8억 대지 140평
- ▶ **중흥동 35m 대로변 준주거지역**
• 코너 대지 180평 매매가 평당 310만원
• 대지 280평 건평 300평 전연 22㎡ 도로접 매매가 10억 5천만원
- ▶ **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102평**
• 조립식건물 64평 현오리실 매 2억 5천만원(월 1억, 보 2500만원 150만 포함)
- ▶ **본흥동 4차선 대로접 900평**
• 2층건물 있음, 생산녹지, 매매가 평당 130만원
- ▶ **삼각동 31사당 정문 앞 4차선대로변**
• 대지 86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 ▶ **도현동 생산녹지 포장도로접**
• 907평 매평당 78만원
- ▶ **학동 대지 120평**
• 여관건물 150평 포함 매평당 330만원